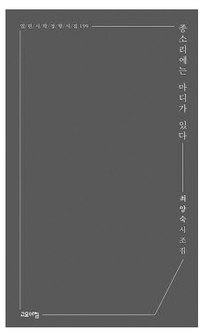
“다양한 소리 시조로 형상화했죠”

최양숙 시인, 6년만에 시조집 ‘종소리는 마디가 있다’ 발간 일상과 내면에 ‘목소리’ 입혀 “시조는 내 안에 흐르는 피”



지나가는 바람이 들려준 소리, 햇빛 소리, 물소리, 세월이 가는 소리….

시조집에서 다양한 소리가 들린다. 다양한 소리를 시적으로 형상화했다는 말일 것이다.

최양숙 시인의 ‘종소리는 마디가 있다’(고요아침)를 펼치자, 다채로운 소리가 들려온다. “내 주변에서 함께 듣고 함께 울었던 소리들을 모아 거침없이 썼던 것 같다”는 말에서 이번 작품집의 창작 배경이 대략 가늠이 된다.

지난 2019년 ‘새, 허공을 뚫다’를 발간한 이후 6여 년 만에 펴낸 이번 시조집은 시인의 말대로 “작품에 가만히 귀 기울여보면 이러한 소리들이 다 들려올 것” 같은 분위기를 발한다.

시인은 첫 시조집에서부터 소리에 천착했다. 일상의 소리, 자연의 소리, 그리고 내면의 소리를 매개로 자신만의 ‘목소리’를 입히는 작업을 해왔던 것.

오랫동안 작품집을 펴내지 않았던 것은 이런 저런 일들로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시인은 “편안한 마음으로 시를 쓰지 못했다”는 말로 작품집 창간 소식을 전해왔다. 차분하면서도 사람 좋은 인상의 그는 ‘있는 듯 없는 듯’ 제 자리를 지키는 시인이다.

“초창기에는 시의 대상을 발견하고 설익은 것들을 꺼내 잘 익은 것처럼 포장했을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햇볕을 알맞게 쪼여주거나 바람을 보태지 않은 채 말이죠. 그러나 이번 작품들에서는 눈 앞에 펼쳐진 것들을 차분하고 진솔하게 그려보려 했어요. 굳이 ‘두꺼운 옷’을 입히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으니까요. ‘가는 데까지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래 묵혀두었던 작품을 꺼내어 놓았습니다.”

최양숙 시인

표제시 ‘종소리에는 마디가 있다’는 사물을 섬세하게 관찰해 울림이 있는 시어로 형상화했다. 종소리에서 ‘마디’를 읽어내는 감성과 사유는 읽는 이에게 ‘보고, 듣는’ 맛을 선사한다.

“몰락한 그곳에서 또 몰락은 시작된다/ 언덕 위 교회당에 우연히 도착할 무렵/ 휘어진 소나무 위로 은행잎이 떨어지고// 종탑은 노란 물결을 지그시 바라본다/ 지켜 온 모든 것이 바람에 쓸려가도/ 가을을 탓할 수 없다 마음이 헐어간다// 천 번의 매질에도 깊게 울었던 종은/ 절대, 라는 소리를 위해 자신을 내리치고/ 스스로 듣지 못하는 마디를 갖고 있다”(‘종소리에는 마디가 있다’ 전문)

화자는 폐허의 언덕에 자리한 교회당 종탑을 보며 수많은 매질을 견뎌냈을 종을 생각한다. “마음이 헐어간다”는 표현에서 종의 일대기가 짐작된다. “천번의 매질에도 깊게 울었던” 그 마음은 기실 화자의 마음이었을 터다. 아니 그 쓸쓸한 종탑을 바라보며 지나쳐야 했을 뭇 사람들의 허허로운 마음도 담겨 있을 것이다.

박영주 강릉원주대 명예교수는 “여기에서의 ‘마디’는 외마디 비명의 마디이자 악보 한 소절의 마디”라며 “중층적 복합적 심상을 불러일으키는 고통과 반복과 전환의 은유”라고 평했다.

그동안 시인은 창작을 위해 남모를 ‘사투’를 벌여왔다. “제 방이 책과 종이와 다 쓴 볼펜심으로 가득하다”는 표현은 저간의 여정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창작이 즐거울 때도 있지만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다. 맞춤한 시어를 골라내고, 정연한 구조를 갖추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은 문인이면 감당해야 할 원초적인 고통이다. “때로는 다투고 조여오는 손길에 옴짝달짝 못한 채 며칠씩 대치하면서 지내기도 했다”는 말에서 간단치 않은 창작의 과정이 그려졌다.

최 시인은 동인지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문학의 길을 가는 동료들과 작품을 매개로 소통하며, 성취와 성장을 도모해왔다. 고교 1학년 때 전남학생시조협회에 친구 따라갔다가 시조에 입문한 것이 오늘의 시인의 길로 이어졌다.

“남도규수문학동인회, 우리시, 사래시, 세계시조시인포럼, 한국여성시조문학회, 열린시학회, 반전, 율격, 후조, 광주문학아카데미 등등 자의반 타의반 활동을 해 온 것 같아요. 개인 사정으로 꽤 오랫동안 시조 곁을 떠나 있었는데 문우들이 기다려준 덕분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죠. 의지처가 되어주었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는 글을 쓰기가 더더욱 시조를 쓰기가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 길을 꾸준히 갈 생각이다. “시조는 제 몸이며 밥이고 제 안에 흐르는 피”라며 “한 편 한 편 써갈 때의 진통은 있으나 시조가 있어 살아갈 이유가 분명한 것 같다”고 시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한편 최 시인은 조선대 문예창작학과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99년 ‘열린시학’으로 등단했다. 중등학교 국어교사로 활동했으며 시조집 ‘활짝, 피었습니다만’ 등을 펴냈으며 시조시학상, 열린시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으로 의미 되새기는 ‘5·18’

5·18기념재단·알라딘 서점, 다음달 2일까지 책 소개 댓글 이벤트

5·18민주화운동 주간을 맞아 5·18기념재단이 온라인 서점 알라딘과 함께 오는 6월 2일까지 관련 도서 독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문학을 통해 5·18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먼저 ‘5·18 민주화운동을 기억하는 책 소개 댓글 이벤트’가 진행된다. 참여자는 알라딘 이벤트 페이지에 관련 도서를 추천하는 댓글을 6월 1일까지 작성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518명에게 적립금 1000원을 지급한다.

서평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최근 3년 이내 5·18문학상 본상 수상작을 읽고 서평을 작성한 참여자 중, 최우수 1명에게는 적립금 3만 원, 우수 5명에게는 각각 3만 원이 지급된다. 대상 도서는 한정현 소설집 ‘쿄코와 쿄지’, 김해자 시집 ‘니들의 시간’, 김형수 ‘김남주 평전’, 정지아 소설 ‘우리들의 해방일지’ 등이다. 응모 마감은 오는 23일이며, 당선자는 6월 2일 발표된다.

서평을 작성한 이들을 선정해 적립금 3만원(최우수 서평 1명)과 3만원(우수 서평 5명)을 지급한다. 서평 대상 도서는 한정현 소설집 ‘쿄코와 쿄지’, 김해자 시집 ‘니들의 시간’, 김형수 평론 ‘김남주 평전’, 정지아 소설 ‘우리들의 해방일지’다. 오는 23일까지 응모 가능하며, 별도 심사를 거쳐 6월 2일 당선작이 발표된다.

이와 함께 알라딘은 님을 위한 행진곡 원본 악보가 그려진 한정판 에코백을 제공하는 굿즈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5·18 관련 도서를 포함해 국내도서 2만 원 이상 구매 시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하다.

알라딘 이벤트 페이지에서는 관련 도서 소개뿐 아니라 1980년 5월 당시의 주요 사건들을 정리한 ‘5·18 타임라인’도 함께 제공된다. 자료는 2024년 발간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국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시민들이 5·18의 역사와 정신을 문학을 통해 다시금 마주하고,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책을 통해 오월의 기억이 일상 속에서 이어지고, 세대 간 공감과 연대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

전남대-서울대, 선율로 잇는 ‘우정’

전남대 예술대, 29일 교류음악회…베토벤·쇼팽 등 음악 감상

오은하 박하원 김서연 지인호 정소윤 양진산

젊은 피아니스트들의 손끝에서 고전과 낭만이 흐른다. 전남대와 서울대 피아노 전공 학생들이 한 무대에 올라 음악으로 교감하는 특별한 무대를 연다.

‘5월의 피아니스트’ 전남대-서울대 교류음악회가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 예술대 예향홀에서 펼쳐진다.

전남대 음악학과는 그동안 ‘5월의 Pianists’라는 이름으로 서울대 등 주요 음악대학과 함께 정기적인 교류 무대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무대 역시 그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학생들이 협력해 마련한 레퍼토리를 통해 음악적 깊이와 개성을 전할 예정이다.

이날 공연에서 학생들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1번 발트슈타인’과 ‘피아노 소나타 23번 열정’,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소나타 2번’ 등 을 들려줄 예정이다.

쇼팽 ‘녹턴 Op.27-2’과 라흐마니노프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등도 레퍼토리에 있다.

무대에는 전남대 오은하·박하원·김서연 등과 서울대 지인호·정소윤·양진산 학생 등이 오른다.

교류음악회를 기획·추진한 전남대 신수경 교수는 “지역과 학교를 넘어 음악으로 소통하는 장을 통해 학생들이 폭넓은 예술적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석 초대.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지역 예술인들에 갤러리 무료 대관

광주예술의전당, 전시 지원…6월 16~20일 작가·단체 모집

전시 기회가 필요한 지역 작가들을 위한 공모가 마련됐다.

광주예술의전당이 2026년 전시지원 사업에 참여할 작가 및 단체를 모집한다. 접수는 오는 6월 16일부터 20일까지(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접수).

이번 공모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전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미술문화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갤러리 공간(416㎡) 무료 대관을 비롯해 작품 설치, 전시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모집 분야는 회화, 조각, 공예, 사진, 뉴미디어 등 시각예술 전반으로, 대상은 광주 지역에서 활동 중인 개인 작가 또는 미술단체다.

개인은 개인전 3회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며, 광주 소재 대학 미술 관련 전공 졸업자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단체는 창단 1년 이상, 단체전 3회 이상의 실적이 필요하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해당 공모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작가는 지원할 수 없다.

최종 선정 인원은 총 10명(팀)이며, 결과는 6월 27일 발표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홍승 광주예술의전당 공연지원과장은 “지역 미술계의 활성화와 창작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많은 예술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